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

주간 ESG 뉴스 2025.10.10~2025.10.17

구분	시장 동향
Energy	● **맥킨지, 에너지 전환 속도 둔화 지속 전망** (2025.10.13, McKinsey & Company) 맥킨지가 글로벌 에너지 전망 보고서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속도 둔화를 지적. '50년에도 화석연료 비중이 40% 이상될 것으로 예측했으며, 현재 청정에너지원의 대규모 상용화 어려움과 전력 수요 급증 등을 속도 둔화 요인으로 제시
	● **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사상 최대치 기록** (2025.10.15, Shipping Telegraph) '24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전년비 15.1% 증가한 582GW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. 다만 '30년까지 용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기후목표 달성은 여전히 역부족. 보고서에 따르면 '24년 말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누적 용량은 약 4,443GW로, '30년 목표치(11,174GW)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
Government	● **중국-아이슬란드 청정에너지 협력 강화** (2025.10.14, 로이터) 중국과 아이슬란드가 지열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및 산업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. 양국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, 에너지 전환 촉진, 녹색 일자리 창출 및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 모색할 계획
	● **트럼프 행정부,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찬성국 대상 제재 경고** (2025.10.15, Shipping Telegraph)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해사기구(IMO)가 추진 중인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안에 찬성하는 국가 대상으로 비자 발급 제한과 제재 조치를 경고. 해운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3%를 차지하며, IMO 회원국들은 차주 표결을 앞두고 있음
Corporations	● **에퀴노르, 해상 원유 플랫폼-육상 전력망간 연결 계획 철회** (2025.10.11, 로이터)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(Equinor)가 비용 급증을 이유로 배출량 감축 계획을 철회. 해당 계획은 해상 원유 플랫폼들을 육상 전력망에 연결해 배출량 감축하려던 의도. 석유·가스 산업은 노르웨이 전체 배출량의 약 25%의 최대 배출원
	● **Google, 탈탄소 인프라에 $5B 투자 집행** (2025.10.14, ESGNews) Google이 벨기에 내 AI 및 데이터 인프라에 $5B를 투자. 주목할 부분은 구글의 투자 지향점이 무탄소 에너지(CFE, Carbon-free energy)를 통한 데이터센터 가동에 있다는 것
Funds	● **핀란드 KER,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비율 확대** (2025.10.10, AMWatch) 핀란드 연기금 KER이 포트폴리오 내 친환경 투자 비중을 확대. 발표에 따르면, '30년까지 친환경 투자 비중 목표치를 10%→20%로 상향 조정. 연기금 측은 일련의 결정이 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과 책임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밝힘. (*참고: KER은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위탁운용하고 있어, 관련 운용사들의 변화 가능성 존재)
	● **영국 APF, 방산 투자에 의견 불일치** (2025.10.10, PensionAge) 영국 연기금 APF 회원들 간 A&D 산업 투자 지속 여부에 대해 의견 엇갈리는 모습. Prevision Research 설문조사에 따르면, 회원 간 찬성(47%)과 반대(42%)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중. 현재 APF는 A&D 산업에 약 £18m를 투자하고 있으며, 이스라엘 무기 공급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에 직면한 바 있음
	● **유로존 KLP, 기후적응 인프라 펀드에 자금 투입** (2025.10.15, Impact Alpha) 유로존 연기금 KLP를 비롯한 주요 기관(Aegon, BNG 등)이 Climate Investor Two 펀드에 자금 집행. 해당 펀드는 아프리카/아시아/라틴 내 물/위생/해양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. 일련의 투자는 극심한 기상 이변에 따라 기후적응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

자료: 언론보도, LS 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투자전략팀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